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막



24일 강릉아이스하키센터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광주 아이스하키 초등부 대표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지난해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전남 크로스컨트리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올림픽 열기 잇는다...겨울 스포츠 대축제 오늘 팽파르

전국 겨울 스포츠 대축제인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동계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4380명(선수 2797명·임원 1583명)의 선수단이 빙상, 바이애슬론,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등 8개 종목에 참가한다. 대회는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등으로 나뉘어 경기가 치러진다.

이번 동계체전에 광주는 6개 종목에 총 12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종합 12위 달성이다.

광주는 종합순위 12위를 달성하기 위해 대진, 세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세종과는 반년째 빙상상 신설로

광주, 6종목 120명 출전...아이스하키·산악 등 주목
전남, 7종목 250명 참가...바이애슬론·스키 등 기대

인프라를 확충한 데 이어 고려대 세종캠퍼스를 통한 대학부 선수 수급으로 동계종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경쟁 상대다.

광주시체육회는 스키 크로스컨트리(전남대), 산악 스피드의 최민준·김우담(이상 불로초 5년), 임도준(광천초 5년) 등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활약에 따라 추가 득점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아이스하키 종목에 3형제 박준태(삼육초 4년)·박이루(송원초 3년)·박리오(살레시오초 3년)와 남매 김주원(신용초 4년), 김재연(신용초 3년)이 주

축을 이뤄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형제·남매 선수가 함께 훈련하며 뛰어난 호흡으로 광주 아이스하키 종목 꿈나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선수단은 앞서 사전경기로 열린 컬링 종목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빙상종목 등에서 종합득점 79점을 확보해 종합순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 선수단은 앞서 사전경기로 열린 컬링 종목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바이애슬론에서는 지난해 제103·104·105회 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한 티오포이

한 모습으로 대회를 마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 선수단은 루지를 제외한 7개 종목 250명이 참가한다. 목표는 종합 8위다. 전남은 강세 종목인 바이애슬론과 스키, 알파인에서 대메달 사냥이 기대된다.

바이애슬론에서는 지난해 제103·104·105회 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한 티오포이

람산은 제106회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며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여전히 국내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다관왕 탈환에 도전한다.

또 2025·2026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초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 두 선수를 필두로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목표로 한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지난해 스키부부 창단한 전남체중·고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4관왕을 차지한 조다은(전남체중 1년)과 5관왕에 오른 이윤주(전남체중 1년)가 각각 고등부와 중등부 무대에 첫 출전. 다관왕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 외에도 다수의 유망주들이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키 알파인 종목에서는 지난해 4관왕 위업을 달성한 강다현(여수여양고 1년)이 고등부 무대에 첫 출전하며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전망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전문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종목별 컨설팅·기술 분석, 컨디션 점검, 부상 예방 관리 등 과학적 지원을 강화해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전남은 과거 '동계체전 불모지'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종합 7위를 기록하며 확실한 도약을 이룬 바 있다. 다관왕과 다연패 선수를 꾸준히 배출하며 신흥 동계스포츠 강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을 발판 삼아 다시 한 번 전남 동계체육의 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남선수단이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선수단 첫 실전 점검' KIA, WBC 국대팀에 3-6 역전패

김태형·황동하 등 투수 투입...외인 카스트로는 1회 투런포



KIA타이거즈가 올해 첫 실전에서 WBC 한국 국가대표팀에게 역전패를 당했다.

KIA는 24일 일본 오카와현 가테나의 가테나 구장에서 열린 WBC 한국 국가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3-6으로 패배했다.

2차 스타프링캠프 첫 연습경기 일정을 진행한 KIA는 김태형을 비롯한 다양한 투수와 타자들이 실전을 소화, 비시즌 기간 준비했던 부분을 체크했다.

이날 KIA는 제리드 데일(유격수)-김호경(중견수)-윤도현(2루수)-해럴드 카스트로(지명타자)-오선우(1루수)-한준수(포수)-한승연(좌익수)-김규성(3루수)-박정우(우익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상대는 김주원(유격수)-안현민(지명타자)-김도영(지명타자)-문보경(1루수)-노시환(3루수)-문현민(좌익수)-박해민(중견수)-김형준(포수)-신민재(2루수) 등 순으로 타선을 구성했다.

KIA의 선발투수는 영건 김태형이었다. 총 47개의 공을 던진 그는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업 등을 구사했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6km였다. 이후 황동하, 홍민규, 이태양을 마운드에 올려 상태를 점검했다.

선취점은 1회초 KIA가 만물었다. 선두타자 데일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에 성공하며 2루에 안착했다. 2사 2루에서는 카스트로가 투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경기는 2-0이 됐다.

1회말에는 김태형이 상대 김주원에게 안타, 안현민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김도영의 뜬공으로 만들어진 1사 2·3루, 상대 문보경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1점을 내줬다.

위기는 2회말 찾아왔다. 2사 3루 상황 상대 김주원의 땅볼을 윤도현이 포구 실책으로 처리하지 못했고, 3루에 있던 박해민이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김태형은 안현민에게 안타, 김도영에게 볼넷을 기록하면서 만루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문보경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2-3으로 역전을 당했다.

황동하가 등판한 3회말에는 무사 1·2루에서 상대 박해민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았고, 김주원에게 2타점 적시타를 내주면서 경기는 2-6으로 벌어졌다.

KIA는 6회초 정현창의 3루타와 주요상의 땅볼로 1점을 추격했으나,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경기는 3-6 KIA의 패배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4일 열린 2026 WBC 대한민국 야구대표팀과 KIA 타이거즈 연습경기. 1회초 기아 4번타자 카스트로가 투런 홈런을 날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체육 발전의 중심...선수단 경쟁력 강화 힘쓰길"

시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임명
육상·복싱 등 27개 종목 29명
'107회 전국체전' 등 선전 다짐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3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2026 전문체육지도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3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2026 전문체육지도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영삼 사무처장, 전문체육지도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등을 앞두고 훈련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격려했다.

시체육회는 육상, 복싱, 펜싱 등 27개 종목에 29명의 전문체육지도자들을 배치해 지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선수 육성을 통한 지역 체육 경쟁력 강화에 도모한다.

모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지도자로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선수

지도 대회 참가 등 전문체육 전반을 담당한다.

이날 행사에서 지도자들은 올해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및 제107회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광주선수단이 획득한 총 3만2626점 가운데 시체육회 소속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이룩한 선수들이 6824점을 획득하며 21%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체육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의 훈련 지도에 헌신하는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근속수당을 인상했다. 앞으로도 지도자 권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도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이 광주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주고,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체육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부탁하며, 올 한해 각종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양시, 2028년 제67회 전남체전 개최지 선정

주경기장·실내체육관 도색 등 시설 정비

오는 2028년 제67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로 광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광양시는 지난 2003년 제42회 대회 이후 25년 만에 전남체전을 다시 개최하게 됐다.

시는 이번 유치로 2028년 제67회 전남도체육대회, 제36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9년 제41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2029년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제

24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등 총 5개 도 단위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메인 대회인 2028년 전남도체육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1만5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종목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시는 광양공설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지정하고 23개 종목 경기장을 모두 확보했으며, 사격(나주국제사격장)과 골프(인근 골프장)를 제외한 21개

종목은 관내 일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 5개 구장(축구전용구장 등), 테니스 14면(광양시립테니스장 등), 탁구 25면(성항다목적체육관 등), 배드민턴 8면, 볼링 20레인, 수영 20레인, 궁도 11사대 등을 갖추고 있어 선수단 이동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오는 7월 하반기 경기인사를 통해 관광문화환경국 체육과 내 '전남체전 TF팀'을 구성하고, 주경기장·실내체육관 도색, 축구 전용구장 2면 정비, 기타 경기장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행정·시설·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mj@gwangnam.co.kr